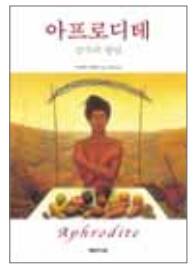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식재료에는 최음제 효능 있다

문학과 예술로 만나는 음식과 사랑 이야기



아프로디테

이사벨 아멘데 지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폭식과 폭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식은 무절제한 사랑을 부르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물론 식도락의 즐거움과 사랑의 감미로움을 싫어할 이는 없다.

그러나 근자에 유행하는 '먹방 프로'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맛을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탐하게 된다.

칠레의 망명 작가이자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대문호 이사벨 아멘데는 험난한 현실을 헤쳐나간 여주인공들을 고결한 사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탐하게 된다.

칠레의 망명 작가이자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대문호 이사벨 아멘데는 험난한 현실을 헤쳐나간 여주인공들을 고결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려내 찬사를 받았다.

이번에 그녀가 펴낸 '아프로디테'는 에로티시즘을 부르는 사랑에 주목한다. 특히 사랑의 촉매제라 할 수 있는 음식과 감각에 주목한다.

'감각의 향연'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음식과 에로티시즘을 감각의 세계로 엮어낸다.

"먹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은 모두 감각을 주관하는 뇌의 기능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들이 꿈이나 환각, 속임수인 것처럼 말이다."

저자에게 최음제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동료들과 1년여에 걸쳐 문헌 탐색이나 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세상의 모든 식재료에는 쾌락을 안겨줄 최음제 효능이 있다.

어떤 식재료든 공함도 많고, 보기에 좋고, 건강에 좋으면 그 자체로 최음제라는 것이다. 즉 사람의 힘은 최음제에서 나온다. 음식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의 일상은 팍팍하고 힘들어도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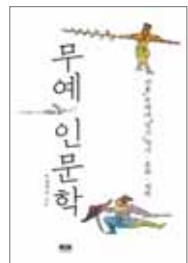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저자가 상정하는 최음제는 진화한다는 점이다. 육체적 사랑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레이스 달린 속옷, 목욕탕 향염, 장미빛 조명 등 말이다. 저자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최음제는 '이야기'라고 한다.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만큼 에로틱한 자극제는 없다는 것이다.

<영림카디널 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무예에 담긴 역사와 문화, 철학



무예 인문학

최형국 지음

흔히 무예(武藝)라고 하면 과거 장수나 무술가의 전유물, 또는 무협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소재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자들의 로망' 가운데 무예가 있지만, 무예를 역사의 한 부분이자 현실적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예라고 하면 낯설고 폭력적인 것으로 여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외로 무예는 우리 일상 가운데, 또는 역사의 특정 부분에 드러와져 있다.

물론 무예 수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도 적지 않다. 인류의 역

사와 함께 시작된 무예는 공동체의 문화, 사유의 단초와 철학적 결실이 담겨 있다.

인문학자이자 객객인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이 펴낸 '무예 인문학'은 전통 무예에 담긴 역사와 문화, 철학을 아우른다. 직접 활을 쏘고 말을 타며 무예를 수련해온 전문가가 소개하는 '몸의 인문학'인 셈이다.

저자는 무예 수련 과정에는 그동안 천시됐던 '몸의 인문학'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균형 잃어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전통 무예는 우리 고유의 몸 문화가 스며있으며 여기에는 보편적인 세계화의 가능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즉 무예를 통한 '몸공부'와 인문학을 통한 '머리공부'는 하나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인물과사상상 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층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층 743㎡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정치인에게 말은 양날의 칼이다

정치가의 언격

후송타오 지음



정치인에게 '말'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부분이다. 대중과의 소통이 정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래 정치인의 '말'은 최대의 약점이자 신뢰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

대중은 한마디의 말로 정치가의 능력을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판단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가에게 말은 가장 빠르게 어필할 수 있는 무기이자, 한순간 잘못으로 나라로 떨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사실 유권자는 정치가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 연설 등 '말'을 통해 판단한다. 정치가 논리 싸움이자, 설득하는 자와 설득당하는 자의 힘겨루기인 까닭이다.

말에도 격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언격(言格)'을 가진 이가 대중의 신뢰를 얻는가? 정치가의 언격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명 '유채이탈 화법'으로 논란이 되곤 했다. 준비된 원고를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조리를 찾을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최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실로 대변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주원인이지만,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던 세 번의 답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무늬만 사과'라는 혹평은 결국 지지자들마저 돌아서게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일관했다. 여기에 안보와 경제 위기를 들먹이며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사

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일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논리와 주장을 들며 지지를 호소한다. 네거티브, 색깔론, 거짓말 등 온갖 전략을 동원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자 안간힘을 쓴다.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말의 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의 학자이자 작가인

후송타오의 '정치가의 언격'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마오쩌둥의 88가지 언어 전략을 분석한다. 저자는 "말은 생각의 물질적 외피이고 영혼의 창이자 사상을 담아 운반하는 저장소다. 개개인의 언어와 문장의 품격을 통해 그가 가진 사고의 깊이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오쩌둥은 이해하기 쉽고 진심이 묻어나는 말로 중국인들을 설득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측면이 있지만) 그는 위기 때마다 리서심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을 매개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 같은 그의 말은 중국을 이끄는 공고한 사상적 기반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책은 모두 4부에 걸쳐 마오쩌둥의 언어 전략을 고찰한다. 1부 '세력 형성기'는 마오쩌둥이 대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

든 언어 전략을 들여다본다. 이 당시 그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로 당시 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부 '목표 확립기'는 미국과 소련 등 경쟁국에 맞서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대중의 신임을 굳건히 했다.

3부와 4부는 각각 '권위 강화기'와 '수성기'로, 여성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는 전략, 경쟁자의 공격을 유연하게 받아내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정치인에게는 유효한 전략을, 대중에게는 정치가의 전략을 꿰뚫어 육식을 가리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선 막바지, 대중을 설득하려는 후보들과 그들을 검증하고 싶어하는 유권자의 힘겨루기는 참과 방패 싸움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는 명확하다.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흐름출판 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란만장 인생을 산 소년의 성장담



뜻밖의 생

김중영 지음

'객주', '홍어',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등 유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작가 김중영이 이번에 장편 '뜻밖의 생'을 펴냈다. 올해로 등단 47년, 여든을 목전에 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펜을 놓지 않는 작가의 치열한 창작 열정

이 빛은 결과물이다.

소설은 한 사람의 일생을 유년부터 노년의 시간까지 그려낸다.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장 작가의 혜안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이 소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 매일 연재한 작품을 토대로 했다.

'뜻밖의 생'은 두 시점을 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하나는 노인이 된 박호구, 또 하나는 소년 박호구이다. 소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소년의 성장담이다. <문학동네 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모양처, 열녀 이미지 견어내니 '육망'이 보인다



악녀의 재구성

홍래외 지음

현모(賢母)도, 양처(良妻)도, 열녀(烈女)도, 효녀(孝女)도 아닌 옛 여인들이 있다. 마음속 육망을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악녀(惡女)' 혹은 '육녀(淫女)'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렸다. 우리 옛 서사 속 악녀들은 어떤 모습

인가? 고전문학을 전공한 세 저자 홍래, 박성지, 정경민이 이런 '악녀'에 주목했다. '악녀의 재구성'은 모성, 열(烈), 양처, 팔자, 여신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그들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육망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 남성을 육망한 꿈 여성의 이야기 '굴나루 전설', 여장남자 사랑자를 끼고 살았던 이순자의 딸 이씨, 동성혼으로 새로운 부부상을 꿈꾼 방한림의 처 영혜랑 등 '악녀'들에 덧붙여진 이 데올로기를 하나씩 지워내 보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순수한 '육망'이었다.

<들녘 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